



겪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이 어디까지 가는지 국민들의 마음이 답답하기만 한 데요.

▲우리가 맞닥뜨린 국난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그 가르침 안에서 생각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현상은 인과에 의한다는 것이요, 한 푼도 한 순간도 덜하지도 않고 또 더하지도 않는 것이 인과법칙입니다. 철저히 하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자의든 또는 시류에 편승했던 오늘날

4~5일
서울 관문사
철야 관음정진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인과법 되새기는 정진기회로”

-서울 관문사에서 치러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는 첫 실내행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종단내 규모가 큰 사찰도 많지만, 서울 관문사에 국난극복법회를 유치한 것은 총무원장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관문사로서는 이번 법회가 대외적 행사로는 처음인데, 마침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의 극복을 기원하는 대법회여서 대단히 뜻깊다고 하겠습니니다. 관문사는 7층 대법당을 낙성하고 개인법회를 오는 10월11일 봉행할 예정입니다.

-개인 가계 기업 등 모두 어려움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인연을 심은 것입니다. 그동안 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 허황된 삶을 살아왔고 그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국난극복 참회대법회의 취지 자체도 불교에서 제시하는 수행법을 철저히 실천하면서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법회도 천태종도들이 주로 수행하는 관음정진을 철야로 하게되지요?

▲4일 밤9시부터 새벽3시까지 기도실과 법당이 꼭 메워지도록 신도들이 국난극복을 위한 관음정진을 합니다. 특히 천태종도는 철야기도는 익숙해 있습니

다. 이런 간절한 기운들이 모여서 반드시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마음과 뜻을 모아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일 없어야 하며, 나아가 이웃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어야 합니다. 세상 이치라는 것이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오름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과장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한 때입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극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사찰에서는 처음으로 능 축수 입산업 협동조합의 참여로 우리 산물 공동적거래장도 열리지요?

▲생산지인 농어민과 소비자인 시민들을 함께 위하는 장터입니다.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실직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10일
대전 엑스포
대참회 영산대제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윤달 영산재로 국난극복 기원”

-국난극복 참회대법회가 그동안 기도를 통한 실천의 성격이었다면 10일 관음종이 주관하는 대참회 영산대제는 유일하게 문화 의식상 법회로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관음종은 지난 66년부터 종단차원 행사로 전국에서 종도 1만여명이 모여 영산대법회를 열어왔습니다. 통일기원, 국민단합, 호국영령 위령, 올림픽 성공 기원 등 국민안위를 위해 영산대제를 올렸는데 이번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법회로 25회째 됩니다. 윤달에 맞춰 올리는 영산대제로 전국의 불자들이 마음이 모아져 조속히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봉착한 경제난은 국민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뉘우치는데서 극복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나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를 매년 열다시피하니 평균 1만여명에 달하는 동참 종도들 질서의식 또한 대단합니다.

-은 국민이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드러나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영과 재정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행사 준비에 동분서주 바쁘신데 동참할 불자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이날 대전 엑스포 지구탑 광장이 위



낙 넘어 많은 불자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난극복 참회법회 가운데 최대 인파가 집결될 것으로 봅니다. 오후 1시에 시작해 뜨거운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도 1만여개를 준비하는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윤달에 재의식도 지내고 참회를 통한 국난극복도 기원하는 뜻깊은 법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일 입장료와 주차료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종단협의회와 관음종에서 배포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므로 행사전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위영민 기자 <yryui@buddhapia.com>

“추기경님은 우리의 영원한 애인”
“영원한 젊은 오빠 사랑해요”
“추기경님은 우리의 등불”
“당신은 빛이었습니다”
6월22일 명동성당에서는 ‘추기경님과 함께하는 감사미사’가 봉헌됐다. 3천여 천주교 신자들은 존경과 감사의 뜻이 담긴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은회하는 김수환추기경과의 석별을 아쉬워했다.

고 신도들은 김추기경의 애창곡인 ‘만남’ ‘사랑을 위하여’ 등을 합창했다.

보도를 통해 다 알고있는 남의종교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는 이유는 감동적이고 부러운 이 정경을 거울로 삼고 싶어서다.

만약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또는 교구본사 주지 임기를 30년으로 정했다면 어떠할까. 부끄러우면서도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불교의 큰집 조계종에서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스님들을 위해 감사법회를 봉행하고, 스님과

목어

남의 종교 이야기

“여러분이 참아주고 도와준 덕분에 30년을 지낼 수 있었다. 나의 부족으로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거나 상처를 입힌 일, 섭섭하게 해준일등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청한다. 여성은 여러분을 위해 살았으며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목주의기도, 미사영성체등 6가지 영적 예를 김추기경에게 봉헌했다. 또 김추기경에 대한 추억만을 모아 책으로 엮어 선불하기위해 신자들의 글을 모았다.

미사에 이어 추기경과 사제 그리

의 추억담을 담은 책을 만들어 봉헌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다.

신도는 스님을 존경하고 스님은 신도들의 동행이 되어주는 모습. 생각수록 아름답고 정겹다.

가을에 있을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입에 담기 거북한 언행이 오가고 있다. 마치 정치판처럼. 제발 개혁전과 같은 부끄러운 일이 재연되지 말아야 할텐데...

일선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재가법사들은 말한다.

“불미스런 소식이 들릴때마다 10년 포교가 무너집니다.”

북 포교 기반다져... ‘햇살 보일듯’

신계사등 복원합의와 교계 대북교류

평불협 북 불교유적 복원추진 ‘10년 성과’ 남북화해 통일불사 ‘성급한 기대는 위험’

금강산 문화유적 복원 합의사항 신계사등 금강산 지역 3개 사찰 복원 불사는 지난 3월 14일 북경에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대표 컵타스님과 북한 금강산국제그룹 회장 박경운씨가 만나 북원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본격화했다.

합의서는 △평불협의 신계사 복원 후 금강산 소재 불교 문화재에 대한 복원 범위 확대 △금강산 성지순례에 관련된 북한내 일체의 권한 평불협에 위임, 성지순례와 수련 편의를 위한 숙소등의 시설 금강산 인근 지역에 별도 건립 △금강산 국제그룹은 금강산 문화재 복원을 위한 현지 답사 주선 △평불협의 사리원 안면, 고성 등의 국수공장을 건립 △평불협이 별도의 단체를 구성, 이 사업을 승계시키더라도 금강산 국제그룹은 이 단체를 인정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한다 등 5개항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대북접촉 경과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가 추진되기

까지 불교계의 대북접촉은 10년이란 세월을 가져야 했다.

1988년 당시 하와이 대원사 주지였던 기대원스님의 북한 방문과 남북불교도 교류추진위원회의 설치등이 대북 접촉의 기폭성이 된것이다. 이어 89년에 미국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법타스님이 북한을 공식 방문하면서 LA의 도안스님과 지현정사도 잇따라 북한불교계와 접촉을 하며 북방포교의 기초를 닦았다.

91년 남북분단 이후 최초로 LA에서 남북불교지도자가 만나 합동법회를 봉행, 남북불교는 분단과 이념의 벽 허물기에 성공했다. 다음해인 92년 평불협의 창립은 대북교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남북불교지도자는 95년에도 북경에서 회동을 갖고 상호교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기조를 재확인 했다.

교계 대북협력사업 작년 9월 민족화합발전추진위원회(총재 월주)가 중국을 통해 옥수수 2천톤과 5천만 원 상당의 의약품들을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기탁한데서 남북불교 교류의 폭을 넓혔다. 98년 북한 옥수수심기운동본부에 1천만원을 전달하고 5월에는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조물련에 지정기탁하며 기상이변과 흉작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의 확산에 불을 당겼다.

96년 불교계 33개 단체가 뜻을 모아 출범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본부장 법륜)도 직심자사와 유진별 재단을 통해 식량지원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부터는 국제구호기금(JTS)을 통해 나진 선봉지역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 구호사업도 펼치고 있다.

금강산 지역 사찰 복원으로 남북불교 교류의 새 영역을 개척한 평불협은 5월 밀가루 20톤을 지원하면서부터 가동되고 있는 사리원의 금강국수공장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과제 금강산 사찰 복원 불사에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다. 성급한 기대로 다가서기보다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강산유적복원추진위원회가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를 두고 범종단적 차원으로 추진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 불교종단협의회 등이 앞장서 추진함으로써 대표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사찰복원과 성지순례 사업을 추진

◇불교계 대북교류 일정

- 88. 8 통일불교운동협의회 창립
- 88. 9 하와이 기대원스님(당시 대원사 주지) 분단이후 최초 승려 북한 방문
- 88. 11 남북 불교도 교류추진위원회 설치
- 89. 6 법타스님 북한 공식방문
- 90. 1 남북불교교류추진위원회 결성
- 91. 1 한민족 불교교류 추진 미주불교협의회 창립
- 91. 10 미국 LA에서 분단이후 최초 남북불교지도자 합동법회 봉행
- 92. 2 조국평화통일추진 불교인협의회 창립
- 94. 8 임진각 평화통일 기원법회 봉행
- 95. 4 평불협 미주 대표단 조선불교도연맹 방문
- 95. 5 송원주 조계종 총무원장·박태호 조물련 위원장 남북불교대표 북경 만남
- 96. 4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북한 방문
- 96. 11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창립
- 97. 10 불주위 옥수수지원
- 98. 3 평불협 대표단 및 조계종 총무원 대표단·조물련 대표단 북경 만남
- 98. 5 평불협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설립 및 1차 지원, 불주위 밀가루 조물련에 지정기탁

에 따른 재정문제의 투명성, 복원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등도 각종단과 단체들이 공동 참여할때 불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금강국수공장에후원금 보냈시다 (02)735-5559

2542년 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 무병장수와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정성을 담았습니다. ”



백팔(108)상조회가 제조판매하는 윤달수의

파격적인 가격에 드립니다.

※ 전국 어디든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21세기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백팔(108) 상조회 회원 모집 및 지사모집

- ◆ 24시간 365일 장례상담 T)032-6128-108
- ◆ 윤달수의 및 회원가입상담 T)032-6673-404